

18년간 0달러... 트럼프, 납세 회피 논란

1조원 손실신고로 세금 공제 트럼프 “법적으로 문제 없어” 힐러리, 트위터 통해 비판 공세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사진)의 세금 문제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대선판에서 핵심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트럼프가 법망의 허점을 이용해 장기간 연방소득세 납부를 피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트럼프가 그동안 납세보고서 공개를 거부하면서 그동안 각종 의혹이 제기돼 왔으나, 이번처럼 비교적 구체적인 내용이 언론에 의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1일(현지시간) 익명의 독자로부터 제공받은 트럼프의 1995년 세금 기록을 근거로 트럼프가 그 해에 9억1600만 달러(약 1조1111억 원)의 손실을 신고했으며 이에 따른 세금공제로 상당 기간 합법적으로 납세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세금 전문가들은 부유층에 유리한 현행 세법 규정으로 볼 때 9억1600만 달러의 손실은 18년에 걸쳐 그만둬야 하는 것만 가능한 수입을 상쇄할 수 있는 규모라고 분석했다.



트럼프를 둘러싼 논란들

클린턴, TV 토론서 미스 유니버스 마차도를 '돼지', '가정부'로 비하했던 트럼프 발언 비난

→트럼프 “그녀의 섹스 비디오와 과거를 확인해 보라”고 트위터에 주장

→뉴욕타임스 ‘세금공제로 18년간 합법적 납세 회피 의혹’ 보도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를 비롯한 미 언론은 일제히 ‘폭탄’(bombshell)과 같은 충격적인 소식이라고 보도했고, 의회전문지 더 힐(The Hill)은 선거판의 관심이 트럼프의 알리시아 마차도(1996년 미스 유니버스) 비하 발언 및 섹스 비디오 논란에서 그의 세금 문제로 급속히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영국 가디언은 이번 납세 의혹이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에게 막

친 최대의 위기”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당장 클린턴 측은 대대적인 공격에 나섰다. 클린턴은 유세 현장에서 트럼프 납세 의혹을 공개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이후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에 여러 차례 ‘잰’을 날렸다. 클린턴은 지난 2012년 트럼프가 자신의 트위터에 “정부 부채가 주체할 수 없는 수준임에도 미국인의 절반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썼던 것을 리트윗하며 “18년간

세금을 0달러 냈던 이가 하는 말치곤 꽤 재밌다”고 비꼬았다. 이어 “트럼프는 연방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으면서 가족들을 위한 400만 달러의 세금 우대조치를 원했다”, “트럼프는 납세자들 덕에 수많은 사업에 돈을 펄펄 쓰고도 자신의 몫을 내지 않았다”고 공격했다.

클린턴 캠프의 브라이언 팰런 대변인은 트위터에서 NYT 보도를 인용하면서 “그가 얼마나 형편없는 기업인이었으며 얼마나 오랫동안 (의도적으로) 세금을 회피해 왔는지 보여주겠다”고 비판했다.

이런 비판에도 트럼프와 그의 지지자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캠프는 “트럼프는 회사와 가족, 종업원들을 책임지는 능력 있는 기업가로, 법적으로 요구되는 것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서 “트럼프는 재산세, 취득세, 소비세, 토지세, 지방세, 국제 등 수억 달러의 세금을 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가 얼마의 세금을 언제 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트럼프 본인도 이날 트위터에서 “나는 역대 어느 대선 후보보다도 복잡한 세법을 더 잘 안다. 내가 조세 제도상의 문제점을 고칠 유일한 사람”이라고 자랑했다. /연합뉴스

영국 유럽연합 탈퇴 공식 협상 메이 총리 “내년 3월 이전에”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내년 3월말 이전에 유럽연합(EU) 탈퇴 협상의 공식 개시를 뜻하는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영국과 EU 회원국 간 탈퇴 협상이 내년 1분기에 시작될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메이 총리는 2일(현지시간) 보수당 전당대회 개막을 맞이한 앞두고 BBC와 한 인터뷰에서 “오는 연설에서 내년 3월말 이전에 50조를 발동하겠다고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스본조약 50조에 따르면 EU를 떠나려는 회원국은 EU 회원국들과 2년간 향후 EU 관계 제반을 정하는 탈퇴 협상을 벌이게 된다. 이 협상은 회원국이 50조를 발동해 협상 개시 의사를 EU에 통보해야 시작된다. 이 시점부터 2년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회원국은 자동 탈퇴된다.

다만 양측이 합의로 협상 기간을 연장할 수는 있다. 그간 메이 총리는 연내 50조를 발동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한 가운데 EU는 브렉시트 불확실성이 확산하지 않도록 50조 발동을 최대한 서둘러달라고 영국 정부에 요구해왔다.

메이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50조 발동 결정은 정부의 몫이라며 의회 표결을 거부한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 /연합뉴스



최루탄 ‘핑핑’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 남쪽 40km 지점의 비쇼프에서 2일(현지시간) 오로모족들이 반정부 시위를 벌이다 경찰이 최루탄을 쏘아대자 달아나고 있다. /연합뉴스

에티오피아 반정부 시위 진압 52명 사망

2일(현지시간) 동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경찰이 반정부 시위대를 강제 해산하는 과정에서 흩어지던 시위자들이 몰려앉아 사고가 발생해 수십 명이 사망했다.

아랍권 위성방송 알자지라와 AP·AFP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에서 남쪽으로 약 40km

떨어진 비쇼프에서 경찰이 오로모족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과 고무탄을 발사한 뒤 시위대가 흩어지면서 압사 사고가 발생했다. 오로미아 주 정부는 이 사고로 모두 52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야당인 오로모연방의회 소속 몰라투 게메추는 “최소 52명이 숨졌고 피해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시위는 약 200만명이 모여든 연례 추수감사절 종교 행사 ‘이레차’에서 시작했다. 일부 목격자들은 반정부 구호를 외치던 시위대가 종교 지도자가 연설하던 무대로 나아가면서 충돌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한 목격자는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과 고무탄을 쏘기 시작했고, 달아나던 사람들이 인근 도랑에 빠졌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中國 인물 이야기



(초당대 총장)

50 조조의 증손 사위 해강

해강(224-263)은 조군 칠현 출신으로 자는 속아다. 원적과 함께 죽림칠현의 대표적 인물이다. 조위 시대의 관리로 조조의 증손녀와 결혼해 조씨가문의 일원이 되었다.

그는 일찍부터 학문이 깊고 거문고와 시에도 능했다.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사마씨를 경멸해 기회만 있으면 조소하고 풍자했다. 조조 집안의 여자를 처로 맞아들인 인연으로 사마씨와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없었다. 그는 탁주(濁酒)와 같은 작은 소망을 가진 선비였다. 그러나 권력과 정치의 세계에서 이러한 작은 꿈도 사치스러운 것이었다. 결국 세상과 거리를 두고 청담으로 소일하는 은둔적 삶을 영위하려 노력했다. 세속의 인연을 끊음으로써 자신을 지키려 했다.

세속에도 어긋나는 바가 있다.”

그는 현학(玄學)의 대가였다. 현학은 관학인 유학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언어, 사회, 우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 노자의 도덕경에서 강조한 무위사상과 깊은 관련이 있다. 그는 불로불사 추구, 음악에서의 감정 부재, 사심 배제 등의 주제를 주로 다루었다. 세속의 일과 명예를 초월해 자기완성을 위해 수양하는 도가적 진인(眞人)을 찬양했다. 벼슬을 사양하고 지저분한 모습으로 살며 산과 계곡에서 술과 음악에 빠진 청담과 은일의 삶을 추구했다.

그는 오랜기간 은거한 덕에 좋은 작품을 많이 남겼다. 4언·5언·6언시, 악부를 지었다. 산문에 능해 「고사전」, 「양생론」, 「성무애약」 등의 작품이 남아있다. 거문고에도 능했다고 한다. 하남성 수무원 근처인 산양에서 20년을 유유자적했다. 친구인 산도가

죽림칠현의 대표...사마씨 비판으로 최후

죽음을 멸망시킨 장군 종회의와 인연이 결국 그를 죽음으로 몰아갔다. 원적은 술로 위기를 빠져나갔으나 해강은 그러지 못했다. 종회의 아버지는 위나라에서 태부, 태위 벼슬을 한 종요 당대의 권신이었다. 서성 왕희지 이전 최고의 서예가로 평가받았다. 종회의 학문이 뛰어났고 역학에 통달했다. 실력과 가문이 뛰어나 다른 사람들이 안중에 두지 않았다. 해강은 그의 질투심의 희생물이 되었다. 어느 날 종회의 아버지를 방문했다. 그는 큰 나무 아래에서 대장장이 일을 하고 있었다. 종회의가 온 것을 눈치채고는 의도적으로 거들떠보지 않고 대장장이 일을 계속했다. 한식경을 기다려도 응대를 하지 않자 종회의는 무안하고 화가 나서 슬그머니 공무리를 뺐다. 그러자 그는 “당신은 왜 여기까지 왔고 또 무엇을 보고 그렇게 돌아가느냐”고 물었다. 난처해진 종회의는 “내가 들은 소리를 듣고 왔다가 내가 본 것을 보고 돌아가는거요”라고 불멘소리를 했다. 이 사건으로 앙심을 품은 종회의는 후일 그를 투옥해 주살한다. 종회의의 처벌 명분은 다음과 같다. “해강은 위로는 천하의 신하가 못 되고 아래로는 왕후를 섬기지 못했다. 시대를 가버이여 기고 세상에 교만해 슬모가 없다. 지금에 있어서 덕이 되는 바가 없고

그를 조정에 천거했는데 이를 불쾌히 여기고 9가지 이유를 들어 절교를 선언했다. 이것이 유명한 산거원고의 절교편지(興山巨源絕交書)다. 한마디로 세속의 예법에 구속받고 싶지 않아 친구의 호의를 거절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편지 내용 중 사마씨 감정을 건드린 구절이 있어 훗날 처벌의 빌미를 제공했다.

그는 종회가 고발한 유언비어 날조죄로 처형되었다. 그는 억울하고 참담한 심경을 유분시(幽憤詩)에 담았다. 3천여명의 학생들이 연명서를 올려 처형을 면해줄 것을 간청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새로운 왕조를 세우려는 사마씨 집안에게는 그는 반드시 제거해야 할 대상이었다. 사형이 집행되는 날 거문고를 가져다 달라고 형에게 부탁했다. 현장에서 광릉산(廣陵散)이라는 음악을 연주하며 “광릉산, 이 음악도 오늘로 끊어지는구나”라고 탄식했다고 한다. 먼훗날 죽림칠현의 일원인 황수는 그가 은둔한 산양의 옛집에 둘러 옛날을 추억하는 사구부(思舊賦)를 지었다. “산양에서 피리 소리를 듣다”라는 산양문적(山陽聞笛)의 일화가 여기서 유래했다. 그는 사마씨에 대한 신랄한 비판으로 필화(筆禍)의 희생양이 되었다.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광주 남구 진월, 효천지구 1만세대 **신도심 핵심상권의 중심지**

성황리 분양중

시행 성희개발(주) 시공 한아종합건설(주) 설계·감리 종합건축사사무소 시중

SH SH BUILDING
스케일이 다른 가치는 투자자의 특권이 됩니다!

- 남구 빚고울CC, 노인건강타운과 대규모 아파트가 연계된 중심지 **우월한 입지**
- 삼면이 확보된 최고의 조망권 및 노출광고가 확실한 상가 **투자가치**
- 고소득 직군의 인적 유입 및 소비증대로 수익증가 **미래가치**
- 어느 누구도, 앞으로 제시할 수 없는 위치대비 합리적 분양가 **고객가치**

효천내 천년나무APT LH행복주택 **현장 SH SH BUILDING** 봉선동 →

효천 제일풍경채APT 빚고울CC 노인건강타운 빚고울전남대병원 진월지구 화순 도곡

문의 062) 676-4006
010-5681-4015

* 본 이야기는 소위전인 이야기를 옮기 위해 재작성된 것입니다.